

프렌들리 다마

VOL 138 2022 봄 호

다마시국제교류센터

【머지않아 즐거운 외국어】

다마시 국제교류센터(TIC)에서 외국어세미나가 시작된 것은 설립해서 3년째인 1996년. 영어, 중국어, 한글의 3클래스, 총인원 44명이었습니다. 그 후 스페인어, 불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등 클래스가 늘어나 현재(2021년도)로는 4개국어 10클래스. 코로나사태로 1클래스 10명까지로 되었습니다만 98명의 회원이 외국어세미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통상은 15명클래스, 약 130명)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1 지금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즐거운 점은 무엇입니까?

- ♥ 클래스의 수업은 물론, 거리로 나아가서 외국인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직 미숙합니다만) (미야사키)·영어
- ♥ 선생님이나 동료와 같이 즐겁게 영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일(오시마)·영어
- ♥ 세계가 넓어지는 것. 대통령의 Twitter에 직접 접촉할 수 있어서 현지의 공기를 숨쉴 수 있다. 전에 한글을 알았을 때, 한국에 대한 좁은 생각이 무너졌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시야를 넓혀서 즐거움도 다채로워진다. (하타노)·영어
- ♥ 영어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의 틀로서 비교적 쓰기가 쉽다. 세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루트(요시카와, H.Y)·영어
- ♥ 선생님이 여러나라 분이어서, 모르던 나라를 알게되거나, 일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스코)·영어
- ♥ 클래스에서 타이를 아주 좋아하는 멋진 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 그 지방의 말로 대화하는 쪽이 그 나라사람과 기분이 통하는 생각이 든다. (다나카)·태국어
- ♥ 세계유일의 인공문자에 의해, 가깝고 먼 나라로 칭해지는 이웃나라, 한국의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점. (오시마)·한글
- ♥ 중국어와 일본어의 표현방법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재미있다. 중국어는 주체가 자기자신이고, 일본어는 주체가 자연이나 타인이 많다. (히비노)·중국어

2 공부하고 있는 언어를 일본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도쿄도의 「자원봉사 가이드」를 하므로, 외국인이 목적지에의 교통수단등 물어본다.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또 부부사진을 찍고자 하는 외국인이 있을 때, 말을 걸어 함께 사진을 찍어준다. (미야사키)·영어
- * 여행가서 현지사람과의 교류에 영어를 쓴다. 출입국수속등. (H.Y, 요, 요시카와)·영어
- * 외국계 회사에 파견근무했던 50대, 회의때 한사람 외국인이 합류하면 모두 영어가 되어버려, 제대로 참가를 못해서 비참하게 생각했었다. (하타노)·영어
- * 해외여행 갔을 때 커피숍에서 추천하는 것을 물었는데 겨우 통해서 긴장감과 놀람과 기쁨을 느꼈다. (마스코)·영어
- * 타이에 살았었는데 가정부나 운전사와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시장의 아주머니들과의 잡담이나 현지 클리닉에서도 그러저러 대응했다. (다나카)·태국어
- * 신주쿠의 술집에서 동료와 마시고 있을 때,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 그룹과 의기투합해서 한국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대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 (오시마)·한글
- * 중국여행때 썼는데 좀처럼 통하지 않아 습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히비노)·중국어

3 공부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또 어떤것이 간단합니까?

- ◆ 듣기를 할 수 없으면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 선생님께서 천천히, 분명히 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말할때도 자신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바로 나온다. (미야사키)·영어
- ◆ 한번 일본어로 생각을 하면 영어가 안나온다. 단어외우기를 못해서 어렵다. 간단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 맞추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H.Y)·영어
- ◆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들리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그냥 노력하고 있다. (하타노)·영어
- ◆ 전부 어렵다. 자신이 외운 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없다. (마스코)·영어
- ◆ 일본어에는 없는 발음과 성조가 어렵다.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아주 바뀌어버린다. 간단한 것은 문법. 과거, 미래등 동사의 변화가 없다. (다나카)·태국어
- ◆ 한글의 어려운 점은 애매한 추측표현으로, 특히 상대에게 어느정도 실례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자의 습득은 간단. (오시마)·한글

- ◆ 어휘가 많지 않아서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을 좀처럼 표현할 수 없다. 단어가 나오질 않는다. (야나기, 요시카와, 오시마)·영어
- ◆ 일본말을 의역하면 어려우므로 직접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게되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히비노)·중국어

4 이 언어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 또 TIC 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요 ?

- ♣ 여러장면에서 영어로 말을 주고받고 싶다. 「길 안내」 「함께 식사하기」 「상대국의 상황이나 일본에의 이해」 등을 말하고 싶다. TIC 활동을 이해받아 국제교류를 깊이한다 (미야사키)·영어
- ♣ 해외여행때 직접 대화가 되면 즐거운 것으로 생각한다. (히비노, 야나기)·중국어, 영어

■ 에피소드

~ 영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오시마 마리코】

혼자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TGV 의 아비뇽역에서 티켓을 보이자 「이것은 이 역이 아니고 가까운 역의 티켓인데 이젠 시간이 안돼요」 라고해서 절망적이 되어 「오늘 도쿄에 돌아가야하므로 파리카까지 가고싶다」 라고 했더니 무료로 파리카까지의 티켓을 주었다. 그래서 열차에는 탔는데, 차량이 달라서 「차량이 연결되지 않아서 도착하지 않는다」 라고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중에, 차장이 빈자리를 소개해 주어 겨우 파리에 도착했다. 이때의 친절한 프랑스사람과 영어는 정말로 해외여행때 필수라고 생각하던 것이 인상 깊어 남아있다.

【OPINION】

감동적인 다마시

에킨지·에루딘치 (터키)

나는 에루딘치입니다. 터키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 「Openfor.co」 라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동개발 무대로서 파트너십을 만들기위해 전세계의 사람들과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동경영자는 아내입니다. 그녀와는 미국에서 만나 함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얀마사람으로 전에 8 년정도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2 년반전, 아직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몇번쯤 방문한 적이 있었던 일본에 가기로 정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유는 있었지만, 일본인 클라이언트가 있었던 것에 더해, 일본의 환경, 음식,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6 개월은 도쿄의 도심에 살았습니다. 편리했지만 맨션은 좁고, 집세는 비싸고, 아웃도어에서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팬더믹이 되고 나서는, 집세가 비싼, 작은 맨션에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리모트로의 일이 가능했으므로, 방도 많고, 그린도 많고, 1 시간내로 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결국 찾은 곳이, 다마시 나가야마입니다. 딱 팬더믹이 시작될 때이어서, 2년이 됩니다.

COVID-19 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만,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건전하며, 안전한 환경에 있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퇴근의 필요가 없으니 전보다 시간을 쓸수 있으므로, “openfor.co/fellowship”이라는 젊은사람 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했습니다. 스타트하고 나서 약 20개국, 3000명에게서 신청이 와서, 그 중에서 120명을 선택해서 국제적인 일을 주고, 기업가로서의 훈련을 하여, 연수기간과 일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다마시를 사랑합니다. 이곳은 나에게 많은 것을 다룰 용기를 주었습니다. 리모트로 일하는 외국인이나 새로운 친구와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나 이케부쿠로에는 계속해서 30 분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웃도어를 좋아하므로, 아름답게 정비된 공원이 많고, 그린도 풍요로운 산이 있고, 조금 벗어나면 해수욕도 할수있는 다마시는 사이클링이나 하이킹, 수영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로 다마주변의 여러 멋진 곳을 달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감사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넓게 오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음악, 스포츠】

가을에 혼자만의 여행

호안 티후에 (베트남)

가을의 교토에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작년가을, 감염자도 대폭 줄고 좋은 타이밍이라 홀로 여행을 정했습니다. 직전에 휴가를 신청해서 상사가 가르쳐 준 스마트 EX 앱으로 신칸센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첫째날 나고야에서 내리지를 못해서, 차장이 교토역 도착후에 무료로 나고야로 되돌아올 수 있게 연락서를 써주었습니다. 나고야에서 사촌여동생이 있는 기후현에 가는 전철도 잘못타서, 밤 늦게야 도착했습니다.

2 일째는 사촌여동생과 같이 교토에 갔습니다만, 3 년간 만나지 못한터라 수다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교토 관광후 저녁에 사촌여동생과 헤어져서 오사카로 이동하여 호텔 근처의 「도키 스키」 에 가서, 가장 인기있는 스키구이와 생맥주를 즐겼습니다. 카운터의 할아버지는 영어가 능숙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 일째는 신세카이랑 난바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복어를 먹었는데 예상보다 맛이 담백해서 조금 실망, 다코야키랑 구시카쓰도 먹었습니다.

4 일째는 교토로 되돌아왔습니다. 긴카쿠지에 가는데, 「Kinkakuji」와 「Ginkakuji」 표시를 잘못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기요미즈테라에서 차와 야쓰하시를 맛보고, 저녁에는 아라시야마에 갔으나 대부분의 가게가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을 안했습니다. 오사카에 되돌아와서, 들어간 야키토리아에서는 제대로 메뉴를 읽지 않았으므로 생각보다 비싸게 지불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사카성을 산책 후에 나라를 관광하고 도쿄로 되돌아왔습니다. 후추역에 도착하자마자 IC 카드의 본실을 알았는데, 역원이 친절히 티켓청산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홀로 여행은 쓸쓸할 때도 있고, 힘들지만 전차나 호텔의 수배, 모르는 지방에서의 주의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요리를 맛보고, 좋은 경치도 즐겼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하면 또 여러 곳에 가서, 여러 체험을 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TIC 전문부 활동의 소개】

유스국제교류부

대표 요시오카 다마에

유스 국제교류부의 활동은 어린이(초·중학생)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족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TIC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짜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도 국제교류의 체험을 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YIE 가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국제이해수업과 대사관 방문의 활동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1.국제이해 수업 다마시 주거의 외국인이 출신 모국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①요리 체험(어린이들과 강사의 나라 요리를 만들고, 그후 시식)과 ②나라소개(강사가 강의하고, 그 후 말을 가르치거나, 그림책을 읽거나, 그 나라의 놀이를 하거나)의 2 개입니다. 연도 초에 유스 부회로부터 각초·중학교에 국제이해 수업을 하는 취지의 안내서를 송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서가 도착하면, 담당 외국인 강사를 소개합니다. 사전에 수업 내용은 학교와 강사가 미팅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유스 부원은 수업이 잘 되도록 항상 강사를 서포트합니다. 강사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모로코,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등의 일본 거주기간이 긴 분들입니다. 외국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일본어입니다만)과 미지의 요리를 만들고, 시식하는 연기 힘든 경험은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대사관방문 동경에 있는 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그 나라, 대사관의 역할 또 일본과의 관계 등을 배우고, 다양성을 알고, 국제감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에콰도르, 몽골 등 많습니다. 유스 부원이 인솔합니다만, 참가자가 어린이이므로,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ICA 지구 광장이나 외무성 등도 함께 방문합니다.

3.적응 지도 부모와 함께 방일하여, 일본어능력이 전무 혹은 불충분하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불안함 속에있는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의 생활습관, 일본인에 대한 대응등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담당 유스 부원은 교원면허를 갖고있고, 학습면에서의 지원도 합니다. 다마시의 위탁사업으로, 120 분 35 회입니다. 그것으로 불충분할 경우, 희망하면 자원봉사로 계속해서 같은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외국인이 클래스에 들어옴으로써, 일본 어린이들도 세계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수속되고, 어린이들이 여러나라를 배우며,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인의 시선】

일본사람이 외국에 가서 처음 알게되는 습관의 차이나 놀람, 당황등은 무엇일까요.

폴란드국에서 일본어교육에 종사하며

교야마 요시오 (전 TIC 자원봉사 일본어강사)

나는 현재, 폴란드국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제슈후시의 공과대학에서 일본어강좌의 자원봉사 교사로 2021년 9월말부터 체류하고 있습니다. TIC에서는 2015년부터 자원봉사 일본어교사로, 일본어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현지에 부임했을 때는 황금의 가을이라 하는 계절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공원이나 강가, 산책길가의 나뭇잎은 모두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일본의 단풍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그러나 10중순이 지나자 일몰시간이 갑자기 빨라져 밤이 길어졌습니다. 11월이 되자 최저기온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12월에는 영하를 기록, 12월 5일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현지에서의 일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만, 수강 희망자를 모집하니 대학원생이나 교직원도 포함하여 90명 가까이 되어서, 전원을 6클래스로 나누어 주 6회 (각클래스 주 1회 90분)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자원봉사의 일로서는 좀 바쁜듯합니다만, 덕분에 지루할 일은 없습니다.

주거는 대학이 제공해 준 게스트용 숙소에서, 식사는 기본이 자취이나, 대학식당에서 정식이 매일 다른 메뉴의 폴란드요리가 나오므로 많이 활용합니다. 포테이토와 고기요리의 메인요리에 반드시 스프와 야채절임이나 샐러드가 따라오므로, 영양의 밸런스가 좋고 폴란드 요리의 버라이어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폴란드사람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하면, 먼저 담당한 공과계 학생들은 모두 순수하고, 이해력이 대개 높습니다. 취미나 여가 보내는법을 물으면, 독서나 영화, 여행, 스포츠, 게임 등의 이외,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많은 학생이 흥미를 보입니다. 일본어에 관심도, 어릴 때부터 친숙한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유래한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많아서, 일본의 서브 컬처에 해외 젊은이에 영향력이 큰것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일반 서구제국과 비교해서 사회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소박함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우선 치안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밤늦게 여자 혼자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식료품 등의 물가가 서구제국이나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도 훨씬 싸게 느껴집니다. 또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해도 주말이 되면 근처의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학생이 많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강해 보입니다.

아직 현지에 들어와서 4개월이 채 못됩니다만, 이제부터 폴란드라는 나라와 사회를, 생활자의 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됩니다.

【클럽 · TIC의 움직임】

9/26	국제 이해 강좌 [터키]
10/21~24	다마 시민문화제 참가
11/23	가을의 산책
11/28	방재 교실
1/8~2/26	일본어 자원봉사자 양성 강좌

【편집후기】

일반적으로 일본사람은 외국어가 서투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어서 육지가 연결된 외국도 없고, 일본어만으로 아무런 부자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모든 나라가 연결된 작금,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필수입니다. TIC 회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기가 중요) 여러 외국어 습득에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특집페이지로 보아주시시오.

다마시 국제교류센터

〒 206-0011 도쿄도 다마시 세키도 4-72 비타·코뮤네 7층 TEL 042-355-2118
FAX 042-355-2104

발행:홍보부
대표 모가미 쓰토무
편집 다케우치 가요코
번역 고바야시 마미

2022년 3월 10일 발행

* 당회보에의 의견과 희망을 보내주시시오.

* 또 당회보는 별지로 일본어·영어판과 중국어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로 연락해 주십시오. 보내 드리겠습니다.

(표지 그림: Darin Gerhart)